사형수가 불교를 만났을 때



붓다가 된 어느 흑인 사형수
자비스 제이 마스터스 지음
권혜림 옮김
불광출판사 펴냄 / 2만2천원

누명 쓰고 사형수 된 청년
불교 만나면서 새 삶 시작
감옥서 회고록 집필 출간
30년 지난 지금 무죄 여론
오프라 윈프리 등 주목해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현대불교 사진DB

"나는 불교의 가르침에 담긴 진리를 실험해 볼 시간이 많았다. 영적인 수행을 통해 모든 것이 오늘 여기에 있고 내일 사라진다는 무상(無常)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언제나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누명을 쓴 억울한 한 사형수는 불교를 만나면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다. 그는 1981년 무장강도 혐의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 퀜틴 감옥에 수용됐고, 4년 뒤 교도관 살인 공모 혐의 누명을 쓰고 사형수가 됐다. 그의 나이 23세였다. 그는 우연한 기회에 불교를 알게 됐고,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신간 〈붓다가 된 어느 흑인 사형수〉는 그의 자필 회고록으로 저자 본인의 이야기이다.

"수년 동안 나는 철망과 낡고 깨진 창문 틈 새로 자유라고 믿었던 것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나 자신을 발견하고 진정한 내면의 자유를 얻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

사형집행을 기다리던 사형수가 삶의 희망을 느끼고, 갇힌 몸으로 내면의 자유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불교의 가르침이었다.

어느날 저자의 사건을 담당했던 조사관이 저자에게 명상법을 알려준다. 저자는 고통과 마주하며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 사형 선고를 받고 얼마 후 불교 잡지에서 '죽음과 관련된 삶'이라는 글을 읽고 영적인 스승 차그두드 툴쿠 린포체를 만나면서, 폭력으로 얼룩졌던 그의 인생은 많이 달라진다.

책은 방치와 학대, 마약중독 등 온갖 폭력적이고 예기치 않았던 불우한 환경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던 한 소년의 성장기라고도 할 수 있다. 저자는 마약에 중독된 부모와 함께 보낸 어린 시절, 위탁가정에서의 학대, 범죄에 노출된 삶, 그리고 사형수가 된 후 불교를 받아들이는 이야기 등을 이야기한다. 때로는 가슴 아프고, 들뜨고, 무섭고, 고통스럽고, 재미있고, 고양되는 삶의 여러 장면들이 펼쳐진다. 소설 같은 이야기는 눈을 뗄 수 없다. 〈톰 소여의 모험〉처럼 개구쟁이의 자유분방함과 모험심을, 〈호밀밭의 파수꾼〉처럼 동심을 지키려는 신념이 저자의 어린 시절에서도 그려진다. 온갖 사건들로 인해 비극을 맞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끝내 극복해 내는 모습은 가슴을 쓸어내리게 한다. 마약에 중독된 엄마를 향한 사랑, 가족들의 보살핌이 부재한 순간에 마주한 상실감, 그로 인해 폭력적으로 변해가는 모습 등은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킨다. 한편, 몇 번의 현명하지 못한 선택으로 인해 추락하게 되는 그는 뜻밖의 장소에서 예기치 않은 인연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저자는 명상을 통해 외면했던 고통과 마주했으며, 모든 존재의 평화를 기원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 붓다의 감성을 전하며 붓다를 닮아가는 그의 삶은 그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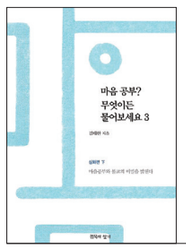
교도관 살인 사건 당시 그는 감옥에 갇힌 상태였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그를 유죄로 만든 증언들은 뒤집혔다. 그가 사형 판결을 받은 지 30여 년이 지난날의 일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사형수다. 점점 더 많은 대중이 그의 무죄를 믿고 그의 자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영적 지도자 페마 초드론과 오프라 윈프리, 노벨평화상 수상자 데스몬드 투투 등 세계적인 유명 인사들도 그의 삶에 주목했다.

책은 한 인간의 '위태로운' 어린 시절을 가장 가까이서 들여다볼 수 있는 매개체이다. 저자 자비스에게 있어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 쓴다는 것은 그가 억눌러온, 파헤치기 두려운 곳으로 뛰어는 일이었다. 고통스럽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 속으로 다시 들어가 기본적인 사고력과 친절함을 잃고 잘못된 길을 택한 모든 순간을 온전히 정직하게 마주하는 용기를 내는 데는 수년에 걸친 자기 성찰이 있었다.

책 속의 이야기는 어른들이 방치한 모든 아이들의 아픈 성장 일기이다. 일상이 폭력이며 사방은 벽이고 창문도 하나뿐인 좁은 감옥에서 볼펜심 하나로 꾹꾹 눌러쓴 회고록은 상실과 위로 그리고 불교에서 찾은 삶의 방향을 고백한다.

마음공부, 제대로 알아야 효험 있다



마음공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3
김태완 지음
침묵의 향기 펴냄
1만4천원

조사선 · 연기법 등 심도 있게 다뤄
경전 등 근거해 기존 오해들 교정

"선(禪)은 곧 깨달음입니다. 우리의 본래면목인 진여자성(眞如自性)을 깨닫는 것이 곧 선이지, 선이 어떤 수행의 방법은 아닙니다. 선은 곧 부처님이 깨달으신 불법(佛法) 자체입니다. 불법은 어떤 종류의 수행법이 아니라, 법계(法界)의 참된 모습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선(禪)이란 무엇인가. 신간 〈마음공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3〉은 올바른 선 공부, 마음공부를 위한 안내서이다. 마음공부에 관한 질문과 선지식의 답변으로 이루어진 문답집이다. 이전에 출간된 입문편과 심화편 상권에 이어 나온 '심화편 하권'이다.

선의 본질에 충실한 조사선이 무엇인지, 아류에 해당하는 수행법들의 문제점, 연기와 방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불법(佛法)을 보는 바른 눈을 갖추고 올바르게 공부하여 곧장 마음을 깨닫도록 안내하는 이 책은 조사선, 문자선, 묵조선, 간화선, 염불선 등 여러 가지 선의 정의, 불이중도, 공(空), 연기법, 연기법의 효용성과 한계 등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마음공부란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 끝없는 자유와 영원한 안식을 위한 공부이다. 이 공부는 그동안 알고 있던 모든 것,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을 떠나 새롭고 낯선 길을 걷는 것이기에 모르는 것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길을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바른길로 이끌어줄 좋은 안내자(스승)가 필요하다. 책 〈마음공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3〉은 마음공부를 시작하는 대중에게 필요한 좋은 참고서이다.

선 공부에 있어서 스승이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잘못된 견해를 바로 잡아주는 일이다. 책은 경전과 선어록 등을 근거로 많은 오해를 교정해 주고, 바른 관점을 갖추어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도와준다. 또한 본래의 선에서 벗어난 아류들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밝히고, 선의 본질이 무엇이고, 올바른 선 공부란 무엇이며, 선의 진정한 효험과 그 원리는 무엇인지를 알기 쉽게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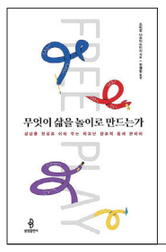
〈마음공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3부작에는 많은 설명이 담겨있지만, 세 권의 책은 이론을 전하기 위한 책이 아니며, 그 모든 말을 관통하는 하나의 의도는 독자를 깨달음으로 안내하는 것이다. 독자들이 분별망상을 벗어나 불이중도의 자리에 이를 수 있게, 불법의 효험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도우려는 것이다.

"마음이 깨달아 있을 때는 마음은 텅 비어서 알 것이 없고 말할 것도 없고, 마음속에 펼쳐져 놓인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분별에서 벗어난 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분별에서 벗어난 마음에는 어떠한 분별도 없어서 분별에서 벗어난 마음이라는 분별조차도 당연히 없습니다."

박재완 기자

매 순간 놀이하듯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법

아이들 놀이처럼 삶에 몰입해야
삶에 창조성 불어넣을 수 있어



무엇이 삶을 놀이로 만드는가
스티븐 나흐마노비치
권혜림 옮김
불광출판사 펴냄 / 1만8천원

"놀이가 창조의 원천이다." 신간 〈무엇이 삶을 놀이로 만드는가〉는 창조의 내적 원천을 탐구한 책이다. 예술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에 관한 이야기이며, 매 순간 놀이하듯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법에 관한 이야기이다.

"가슴은 머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 17세기 프랑스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파스칼이 한 말이다. 이 말 속에는 많은 사람이 삶과 예술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창조성에 관한 진리가 담겨 있다. 창조성은 이성적 사고나 수학적 계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비롯되는 '무언가'라는 사실이다. 이 책의 저자, 스티븐 나흐마노비치(즉흥 바이올린 연주자)는 이 '무언가'에 접근하고 그 힘을 일상으로 끌어내는 방식으로서 '놀이'를 강조한다. 아무런 이유나 목적 없이 순수하게 놀이에 몰입하고 놀이와 하나가 되는 아이들처럼 자신의 삶과 일에 온전히 빠져들 때 평범한 삶에 창조적 숨결을 불어 넣을 수 있다고 말한다. 마음껏 뛰어놀아라.

거침없이 내딛는 발걸음을 따라 우리 내면에 깃든 창조의 영감이 샘솟게 하라. 책은 노는 법을 잊은 어른들을 동심의 세계로 인도한다. 우리를 마음껏 뛰어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무엇인지 탐구함으로써 순수한 놀이로 되돌아가는 법을 알려준다.

책을 통해 인간의 상상력을 최대로 사용할 때 얻어지는 깨달음, 기쁨, 책임감, 평화를 널리 알리고자 한다. 여기서 우리는 직관적인 음악을 비롯한 모든 즉흥 작업이 어떤 식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지, 삶의 특정 요소가 어떤 식으로 그 작업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모호하게 하는지, 그럼에도 결국 어떤 식으로 즉흥성을 해방시켜 자신의 진짜 목소리로 말하고 노래하고 글 쓰고 그림 그릴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 모든 질문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의 실제 경험은 물론 종교와 철학의 영역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박재완 기자



천 년 만에 처음 선보이는 선의 정수!
격절록 역주
원오선사가 한 철 안거 동안 제자들의 확철대오를 위해 설한 법문으로, 선종의 종장인 설두중현과 원오극근의 언어도단, 촌철살인의 자유자재한 경지를 맛볼 수 있다.
원오극근 지음/덕우 강승욱 역주/신국판/양장/624쪽/값 35,000원

선의 정수, 선시의 묘취를 맛보다!
반야의 달 띄워 보세
서울 성북동 약사암에서 경전과 선어록을 가르치고 있는 일휴 스님이 붓다의 근본 가르침인 연기와 무아, 공성을 노래한 게송시와 번역시를 모아 엮었다.
옥당 일휴 지음/신국판/양장/744쪽/값 40,000원

붓다라면 경제학 입문을 어떻게 가르칠까?
불교 경제학
자비, 무소유, 상호 의존성, 지속 가능 사회 등 불교의 관점에서 경제학을 재구성하여 자유시장 경제학을 극복하는 대안을 제시한 흥미롭고 파격적인 책!
클레어 브라운 지음/박찬국 옮김/신국판/무선/256쪽/값 18,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